1화.

클럽 Y.W

화려하면서도 기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강남의 상위 1% 클럽인 이곳은, 철저한 수질 관리를 하기로 유명했다.

제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격이 떨어지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소리다.

클럽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명품으로 온몸을 감쌌으며 고혹적이고 매혹적인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리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화려함과 아름다움 가운데 눈에 띄는 인형 같은 외모의 여자 하나.

사람들의 시선이 구석진 자리에서 웨이터가 주는 칵테일을 몇 모금 마시고 있는 그녀에게 향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걸친 심한 노출과 번쩍거리는 의상들 사이에서 그녀의 노출 없어 보이지만 등이 파격적으로 파여있는 드레스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다 못해 고정시켰고, 남자들의 본능을 자극했다.

일견 밋밋한 살색의 원피스 아래로 드러난 가느다란 팔다리는 보호 본능을 일으켰고, 풍만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는 메마른 욕구에 불을 붙였다.

바로 밑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굴곡은 굶주린 늑대들을 울부짖게 하고도 남았다.

그러나 그런 뜨거운 시선이 꽂히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녀의 초점 없는 눈은 무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작업 거는 남자들이 귀찮은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곤 부족한 알코올을 채우기 위해 바 테이블로 향하기로 했다.

남자들에게 깔창이 있다면 여자들에겐 하이힐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10cm가 넘어간 하이힐을 킬힐이라고 부른다.

그녀가 신고 있었던 게 12cm짜리 힐, 킬힐이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들을 사이를 질러갔다.

또각또각.

시끌벅적한 클럽 음악 사이로 매혹적이면서 명쾌한 하이힐 소리가 사람들의 귓가에 강하게 파고들었다.

똑 부러진 하이힐 소리가 들리자 마법이라도 부린 듯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그녀에게로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한 성형외과에서 틀로 찍어낸 듯한 인위적인 미인들 사이에서 돋보였다.

그녀의 도자기처럼 부드럽고 깨끗한 피부와 검은 생머리, 그리고 두툼하면서도 붉은 입술은 백설 공주를 연상시키는 것 같았다.

풍성한 속눈썹과 고양이와 강아지가 섞인 날카로우면서도 동그란 눈매는 묘하면서 계속해서 눈이 가게 했다.

깊게 가라앉은 눈동자와 특유의 퇴폐적인 분위기는 평범한 인간 같지 않았고,

미소 하나 없어도 도도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조각상과 같았다.

또각또각-

그녀가 시간을 멈춘 것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을 지나쳐 바 테이블에 앉았다.

마치 임무가 끝났다고 말해주기라도 한 것처럼, 춤을 추던 사람들은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수다를 떨던 자들은 다시 신나게 재잘거렸다.

“혼자 왔어요?

“새로 왔어요?”

바텐더가 혼자 왔냐고 물어보자 라희는 대답을 대신 질문으로 그의 물음을 받아쳤다.

Y.W 출근 도장 찍은 지 4년이 되어가는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게다가 라희, 그녀가 이렇게 눈에 띄는 은발 머리를 기억 못 할 리가 없었다.

라희는 은발로 염색을 했음에도 개털 같기는커녕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보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연예인도 아니고 바텐더 월급만으로 저 정도 머릿결을 관리하기 힘들 텐데..

게다가 은발을 저렇게까지 자연스레 소화한다는 게 신기했다.

마치 본래 은발로 태어나기라도 한 것 같았다.

아이돌도 아니고..

은발이 굉장히 잘 어울렸다.

“질문은 내가 먼저 했는데?”

“혼자 왔어요.”

그 말을 내뱉으며 라희는 서글서글한 미소가 사막여우를 닮은 연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티 하나 없이 맑고 새하얀 피부에 사막여우를 닮은 크고 유난히 생기 넘치는 눈과 웃을 때마다 예쁘게 파이는 보조개.

초승달을 연상시키는 아치형 눈썹과 매혹적인 선홍빛 입술까지.

배우 뺨치는 얼굴에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이런 데 혼자 오면 위험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클럽 출근 4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걸요.

하지만 굳이 뒷말은 하지 않았다.

처음 보는 남자에게 신상을 구구절절 늘여놓을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깐.

“그럼 이제 대답해봐요. 새로 들어왔어요? 새로 온 바텐더예요?”

“음.. 애매한데.”

“...”

“우선은 바텐더라고 해두죠.”

바텐더냐고 형식적인 질문을 했을 뿐인데 대답은 예, 아니오 둘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았다.

애매모호한 답만 남긴 채 연우는 보조개가 피는 희미한 미소를 그려 올렸다.

“뭐 마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좀 센 거로.”

라희가 도수가 꽤 높아 보이는 양주를 가리키자 연우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천만 원이 넘는 저거?”

“왜요? 비싼 거 마시면 안 돼요?"

“그럴 리가.”

연우가 능글맞게 대꾸했다.

그가 긴 손을 뻗어서 양주를 잡으려다 팔을 멈췄다.

혼자 온 여자 손님한테 이렇게 독한 술은 굉장히 위험했다.

그게 숨 막히게 아름다운 여자 손님이라면 더더욱.

비록 그녀 특유의 서늘한 분위기 때문인지 남자들이 함부로 말을 걸지 못하는 듯싶었지만,

그녀가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보려고 안달이 남자들이 수두룩했다.

꽃 있는 곳에 나비만 꼬이는 게 아니다. 나방도 꼬이고 파리도 꼬인다.

연우는 라희, 그녀가 앉아있는 바 테이블 주위로 따닥따닥 포위해 있는 굶주린 늑대를 힐끗 보았다.

관심이 없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무신경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앉아있는 라희는 이들이 불편하지도 않은 모양이다.

아니면 너무 익숙해 신경 쓸 가치도 없다는 건가?

연우는 자신에게 날이 잔뜩 선 시퍼런 눈빛을 보내는 남자들을 눈으로 힐끗 흘겼다.

여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남자가 쳐다보니 식은땀이 절로 흘렀다.

그들의 차가운 견제의 눈빛이 굉장히 불편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는지 헛기침이 절로 나왔다.

“기분 나빠.. 그냥 이걸로 줘요.”

연우의 기침을 오해한 건지 라희가 예쁜 얼굴을 설핏 구겼다.

라희가 양주를 가리키던 손가락을 알록달록한 칵테일로 옮겼다.

“도수와 가격이 겸손하네요.”

“소주나 편의점에 파는 맥주에 비하면 거만한 거죠.”

라희가 도도하게 대꾸했다.

연우가 한 마디도 지지 않는 라희를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다 그녀의 짙은 눈동자와 허공에서 부딪쳤다.

칵테일 안 만들고 뭐 하냐는 타박과 재촉이 골고루 섞인 눈빛이다.

연우가 그녀의 눈을 못 본 척 메뉴판을 건네며 능청스러움이 묻어나오는 목소리로 묻는다.

“안주는 시키실 거 없어요?”

“흐음.. 이거?”

라희가 갑자기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메뉴판을 톡톡 가리켰다.

올라오던 취기에 취한 모양이다.

헤실헤실 웃는 그녀를 본 연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술도 안 줬는데 벌써 취한 거야?

그럼 곤란하다고.

그러고 보니 그녀는 구석진 테이블에서 칵테일 두 잔에 양주 한 병을 이미 비워버린 후였다.

저 값비싼 14년산 양주의 자태를 본 연우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저거 도수 꽤 높은 건데..

저걸 다 마셨다고?

“주량이 어떻게 돼요?”

“저 술 되게 센데?”

저 양주 한 병을 혼자 다 마셨다면 되게 세겠지.

연우가 부드럽게 웃었다.

연우의 미소를 오해했는지 라희가 발끈하며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저 술 되게 세다니깐요?”

“그러니깐 주량이..”

“술 한 번도 취한 적 없어요.”

라희가 손을 크게 휘저으며 말했다.

애써 무표정을 유지하려는데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다.

앞에서 우아하게 앉아있던 차갑고 도도한 여자는 온데간데없었고 애교 많은 여자만 남아있으니 말이다.

“지금 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취한 거 같은데?”

“아니거든요. 나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그건 그렇네.”

그럼 할 말 없다며 연우가 입을 다물었다.

라희는 자신이 취한 게 아니라며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연우가 보기엔 그녀는 충분히 취한 상태였다.

연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능숙한 손놀림을 선보이며 무알코올 칵테일을 만들었다.

아까 그녀가 주문한 칵테일과 붕어빵 같은 비주얼을 선보이고 있었다.

연우는 주류에 대해 꽤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라희의 상태를 확인한 그는 알코올 대체 할 수 있는 무알코올 음료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냈다.

바다처럼 푸른빛을 머금은 칵테일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짝이는 모래사장처럼 황금빛이 돌았다.

꼭 하와이 해변을 연상시켰다.

연우에게 칵테일을 건네받은 라희는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한 모금 마셨다.

입안을 달달함이 가득 채웠다.

시원하면서도 상큼해서 미소가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

무알코올 칵테일이 그녀의 취기를 가라앉혔으면 했지만, 아까 라희가 마셨던 양주의 취기는 가시기는커녕 계속해서 올라왔고 라희는 점점 꽐라가 되어갔다.

“저기 신입 바텐더, 제가 그렇게 차가워 보여요? 제가 숙맥으로 보여요?”

“...”

“남자친구가 석고상이랑 연애하는 것 같다며 헤어지재요.”

라희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빈 양주병을 얼굴에 밀착시키면서 울상을 지었다.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진 않았다.

그녀는 꼬집어줄 정도로 귀엽고 앙증맞게, 하지만 너무 과하진 않은 속상해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서글픈 목소리는 작지만 너무 작지도 않은, 딱 연우의 귓가에만 들릴 만한 크기였다.

“제가 아무리 연애를 한 번밖에 못해봤지만, 여자친구 두고 원나잇 하는 건 개자식인 거 잘 알거든요.”

“남자친구 원나잇 하는 거 보고 충격받아서 얘기하니깐..”

“숙맥이래요. 나랑 연애하면 답답하대요.”

“나보고 원나잇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딴 소리 지껄이지 말라고 한번 해보고 와서 따지래요.”

라희가 입술을 질끈 깨물고는 주절주절 하소연하는데 그녀의 말을 듣던 연우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여자더러 원나잇하고 오라니..

“개자식이네. 그게 여자한테 할 소린가?”

“그래서 오늘 좀 비장하게 하고 왔는데..”

“등 파인 거 입은 게?”

연우이 라희가 입은 옷을 힐끗 확인했다.

앞에서 봤을 땐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노출이 없는 원피스지만, 등이 파격적으로 파여 있어 반전을 주는 옷이었다.

연우가 넌지시 묻자 술기운 때문인지 쑥스러워인지 얼굴이 붉어진 라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 귀여워 죽겠다.”

“그럼 나랑 잘래요?”

라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는다.

헤실헤실 웃는 라희에 반해 연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굳은 얼굴인지 무표정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연우가 생각을 마쳤음에도 여전히 오묘한 표정을 유지하며 라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아주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럼 예스로 들어도 되는 거예요?"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럼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래, 그럼.”

연우의 눈꼬리가 휘어졌다.

초승달처럼 예쁘게. 묘하게.

...

“도망가려면 지금 밖에 없어.”

귓가에 연우의 마지막 경고가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연우가 호텔 방 안에 들어서려는 라희를 막아서며 물었다.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자신을 지그시 쳐다보는 그의 눈빛이 따스하기 때문인가.

그의 눈빛을 잃고 싶지 않았다.

라희가 자신의 앞을 막아선 연우의 손을 잡아 내렸다.

“좋아, 그럼.”

연우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2화.

“도망가려면 지금 밖에 없어.”

귓가에 연우의 마지막 경고가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연우가 호텔 방 안에 들어서려는 라희를 막아서며 물었다.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자신을 지그시 쳐다보는 그의 눈빛이 따스하기 때문인가.

그의 눈빛을 잃고 싶지 않았다.

라희가 자신의 앞을 막아선 연우의 손을 잡아 내렸다.

“좋아, 그럼.”

연우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운명은 우연처럼 2화]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었다.

드라마와 웹소설에서 밥 먹듯 나오는 내레이션.

라희는 24년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귀에 들릴 거라곤 상상조차 못 했다.

라희가 눈을 연신 끔벅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윽..”

몸을 일으켜 세우자 머리가 지끈거림 동시에 울렁거림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저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었다.

어제 어찌나 많이 마셨는지 평소에도 없던 숙취가 다 왔다.

라희가 다시 침대로 힘없이 풀썩 쓰러졌다.

누워있으니 속이 뒤틀리지 않아 어지럼증이 덜했고 속이 덜 거북했다.

“응..? 뭐지.”

눈을 지그시 감은 라희가 다리를 옆으로 옮기는 데 익숙하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은 감촉을 느꼈다.

내 살결인데 내 살결은 아닌 다른 사람의 살결 같은 그런 감촉?

“에이, 설마.”

살결일 리가 없잖아?

5년 동안 클럽을 다니면서 남자들한테 번호 한번 준 적이 없을 정도로 철벽인데.

원나잇 따위 했을 리가 없잖아?

그 믿음은 금방 산산조각이 되어 깨져버렸다.

술에 취해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안 했다고 확신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던져본 빌어먹을 질문에 의해서.

술만 취했겠지.

혹시 알아? 내가 술 취해서 본가에 기어들어 간 걸지도?

자기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낙천적 에너지를 티끌 모으듯 끌어모아 자기 위안을 했지만,

눈을 뜨자마자 보인 낯선 천장에 어우러지는 고급스러움이 샹들리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잘게 부서졌다.

하도 밟혀서 밟아도 더 이상 바스락 소리조차 나지 않는 비스킷처럼.

아주 잘게, 그리고 아주 작게.

다시는 복원이 안 될 정도로.

“악! 절대 아닐 거야..:”

라희가 경악에 가득 찬 얼굴로 따가운 비명을 내질렀다.

그리곤 연신 믿을 수 없다고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라희가 절대로 아니라고 애써 부인했지만, 우선은 다리에서 느껴지는 감촉에 집중하기로 했다.

자신의 순결에 석고대죄를 하든 말든 그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해도 늦지 않았으니깐.

라희는 온 감각을 최대한 곤두세워서 다리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려고 했다.

누구의 다리인 거 같은 살결에 맞닿는 느낌이 꼭 껍질이 벗겨져 오들오들한 생닭을 만지는 느낌이었다.

닭살 돋은 팔처럼 울퉁불퉁해 불쾌함이 치솟아 오른다.

툭 치기만 해도 눈물을 주르륵 흘릴 것 같은 얼굴을 한채 바들바들 떨다가 고개를 살짝 돌려서 옆을 힐끗 보았다.

새하얀 호텔 이불로 덮어져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룩한 걸 봐선 사람인 거 같다.

아니, 사람이 확실했다.

저질러버린 거야?

정말로?

23년 동안 지켜왔던 이제 곧 24년이 되어가는 순결을?

“지금 실망하고 자책하면 안 돼."

그건 집에 가서 냉장고에 머리를 박으면서 해야 하는 거지 딱 봐도 5성급 호텔의 부드럽고 푹신한 침대에서 하면 안 되는 거다.

5성급 호텔에도 해선 안 될 짓이지만 자신에게는 더욱 해선 안 될 짓이다.

왜냐고?

보들보들한 이불과 청결함이 느껴지는 침대에서 아무리 혼내도 놀러 온 만끽함이 느껴져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게 분명하니깐.

그럼 석고대죄는커녕 반성도 하지 않을 테니깐.

라희가 마음을 잡고 새하얀 이불의 끝자락을 잡았다.

하나, 둘, 셋을 마치면 거칠게 들춰볼 생각이다. 라희가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그리고 눈을 질끈 감고 셋을 외쳤다.

“셋!!!”

침묵이 흘렀다.

거칠게 이불을 들추면 잠에 든 남자라든지, 누워있던 남자라든지, 쓰러진 남자라든지 놀라서 일어날 거라고 한 치의 의심 없이 확신했었다.

근데 움직임은커녕 아무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지만, 자신이 거칠게 잡아당긴 이불이 힘없이 떨어지는 소리만 귓가에 박혔다.

라희가 슬그머니 한쪽 눈을 치켜떴다.

게슴츠레 뜨인 눈이 갑자기 동그랗게 커졌다.

“뭐야?”

라희의 입에서 안도와 실망감이 약간씩 섞여 묻어 나오는 목소리가 구슬 굴러가듯 흘러나왔다.

빵빵했던 풍선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다.

듬직하다고 말할 정도로 컸던 풍선이란 불안감은 눈앞을 확인하기 무섭게 멸치처럼 볼품 없어져 버렸다.

“베게잖아.”

베게였다. 잠잘 때 끌어안고 자고 베고 자는 베게. 베게 세 개가 따닥따닥 붙어있어 사람인 줄 착각하게 했다.

십 년, 백 년, 그것도 아닌 천년 감수했다.

라희가 안도의 숨을 내뱉으며 살결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로 시선을 돌렸다.

아까보단 긴장감이 덜했지만, 그로 인해 모인 침을 꿀꺽 삼켰다.

“꼬끼오오오오오오옥.”

다리를 들어 올리자 눌려있어 소리를 내지 못했던 닭 모형의 장난감이 괴상한 울음소리를 냈다.

그제야 안도 섞인 웃음을 터져 나온다.

달랑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는 헐렁한 반소매 티셔츠 하나를 걸치고 있는 게 굉장히 찝찝하긴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분명하다.

“아니, 그렇게라도 믿을 거야.”

라희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자신의 옷을 주섬주섬 주워서 입었다.

지금 바깥에 입고 나가기엔 굉장히 눈에 띌 게 분명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라희가 호텔 방을 나서기 전에 카드가 꼽혀있나 확인했지만 이미 누군가 카드키를 가져간 모양이었다.

라희는 어쩔까 고민하다가 잘 보이는 곳에 십만 원짜리 수표 두 장을 꺼내서 올려놓고 나왔다.

그러다가 아까 자신을 놀라게 한 생닭 장난감과 눈이 마주쳤다.

징그러운 흉물을 봤더니 심기가 불편해진 라희가 복수랍시고 생닭을 거칠게 집어 들었다.

“꼬오우끼옦.”

새하얀 손아귀에 힘을 주자 생닭의 눈알이 툭 튀어나오면서 해괴망측한 소리를 내뱉었다.

못 볼 꼴을 본 라희는 눈살을 찌푸렸다.

“꼬꾸웨엑.”

라희가 싱긋 미소를 짓더니 생닭 장난감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바닥에 떨어지면서도 눈깔을 도로 집어넣고 희한한 비명을 내지르는 인형이 징글징글했다.

“잘 있어. 평생 보지 말자.”

라희가 생닭 장남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미련 없이 문을 쾅 닫았다.

호텔방 문이 잘 닫혔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한 라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올렸다.

그녀가 12cm 하이힐을 신고 꼿꼿이 펴진 허리로 당당하게 걸었다.

어제 술에 취해 만취하였다는 사람이라곤 전혀 믿기지 않는 바른 걸음이었다.

남들이 보기엔 라희의 표정은 태연하기 그지없었지만, 실은 꼬리뼈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다.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힘을 풀어버리면 실이 끊어져 버린 꼭두각시처럼 고꾸라 넘어진다.

그랬다간 무슨 추태란 말인가.

라희는 이를 아득바득 갈며 꼬리뼈와 허리에 힘을 잔뜩 줬다.

근데..

“뭔가 허전한데.”

꼭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고 온 느낌이다.

허전함을 느낀 라희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다.

잠시 생각에 잠기던 라희의 새하얀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다.

허전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다.

브로 시작해서 지로 끝나는 무언가를 말이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불안감에 휩싸여 세차게 흔들렸다.

라희가 다급하게 몸을 돌려세워서 쪼르르 문으로 달려갔다.

혹시나 하고 문을 있는 힘껏 밀어보기도 했지만,

"말도 안 돼."

야속하게도 굳게 닫힌 문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문 닫을 때도 확실히 닫혔나 여러 번 확인했던 1분 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스스로가 이렇게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죽고 싶었다.

라희가 허전한 상의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는 안 볼 사이인데.. 빨리 집이나 가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겉옷이 꽤 두툼하다는 사실.

라희는 코트를 더욱더 여미며 빠른 걸음으로 호텔을 빠져나갔다.

라희는 보지 못했지만, 저 멀리서 그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백연우였다.

혼자서 애꿎은 머리카락을 쥐어뜯다가 자리에 주저앉는 둥, 생쇼를 하는 라희를 보며 연우의 입에서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다.

안 들어가고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뭐 하냐고 물으려는데 자신 손에 있는 카드키가 보였다.

연우가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는데 멈춰 서있던 라희가 몸을 홱 돌린다.

그리곤 미련 없이 호텔 방 앞에서 멀어져 갔다.

“뭐야, 인사도 없이 가는 거야?”

문을 여러 번 열더니 이내 포기하고 발에 불이 떨어질라, 부리나케 달려가는 라희를 보며 연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서운하게.”

멀어지는 라희의 뒷모습을 연우가 눈꼬리를 예쁘게 휘어 말았다.

…

띠리릭. 호텔 카드키를 문고리에 대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스르륵 열렸다.

연우는 문고리를 밀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온몸이 녹초처럼 흐물거리는 것만 같았다.

연우가 푹 숙이던 고개를 힘겹게 올려 들었다.

“와우.”

방안은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

말 그대로 개판이었다, 개판.

연우는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람을 예상하고 픽 웃었다.

“저건 뱀이야?”

연우가 처참한 몰골을 하고 침대를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라희가 침대에서 몸부림을 쳤던 모양인지 침대 시트는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있었다.

뱀의 속성을 지녔다고 의심되는 새하얀 이불은 침대에 몸의 반을 걸친 채 꾸물꾸물 기어 바닥으로 향하고 있었다.

생닭 느낌을 그대로 전해주는 장난감은 오랫동안 눌려있어서 제 본래 형태를 잃고 찌그러져 있어 보기만 해도 안타까움을 선사해주었다.

항상 고고하게 서 있던 나무 의자는 오래간만에 휴식을 취하고 싶었는지 몸을 바닥에 눕혀 딱 달라붙었다.

그녀가 허둥지둥 준비하며 방을 도망치는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연우가 호텔 직원에게 방 청소를 부탁하려고 수화기를 들어 올렸는데 뱀의 붉은 혀가 눈에 들어온다.

연우가 눈썹을 치켜세우며 이불에서 자태를 뽐내는 붉은 무언가를 짚어 들었다.

“이게 왜 여기에..”

연우가 영문을 알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작게 중얼거렸다.

“... 큭.”

그러다 호텔 방 앞에서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던 라희의 모습을 떠올리곤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터트렸다.

열리지도 않는 문 앞에 서성거리며 나설 때도 미련이 가득했었는데..

설마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못했던 거였어?

두꺼운 겉옷을 심각하게 볼 정도로 여미던 그녀의 비장한 얼굴이 생각이 났다.

지금쯤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겠지?

택시를 탔음에도 겉옷을 꽉 쥐고 있는 라희의 모습이 절로 연상되었다.

연우는 이대로 그냥 가려다가 말았다.

속옷을 놓고 갔다간 호텔 직원에게 이상한 오해를 받을까 봐 걱정되는지 눈에 보이는 쇼핑백에 재빨리 집어넣었다.

“근데 이건 뭐야.”

고개를 돌린 연우가 탁자 위에 자태를 자랑하는 새하얀 수표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십만 원이네? 설마 이걸로 호텔 값하라는 거야?”

5성급 호텔이지만 비수기였기에 일반 룸은 20 ~ 40만 원 정도 했다.

원나잇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돈만 던져놓고 간 사람의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았다.

다시는 보지 말자.

간단히 해석해서 말하면 이 뜻이었다.

“그런데 어쩌지..?”

“이걸론 부족한데..”

연우가 나무로 만들어진 벽장 문을 잡아당겼다.

거실로 보이는 탓 트인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연우는 익숙한 듯 거실로 들어섰다.

무슨 호텔 안에 부엌이 다 있나 싶었다.

그러나 어쩌겠느냐..

연우가 있는 룸은 평범한 룸이 아니라 스위트룸이었으니 말이다.

연우의 소파에 미끄러 쓰러지듯 누웠다.

3화.

제이와 거실에 나란히 앉은 라희는 귤을 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안에 사람들은 왁자지껄 폭소를 터트리고 있는데 정작 시청자인 제이와 라희의 표정은 냉랭하기 그지없다.

믿기진 않겠지만 제이와 라희는 예능을 보며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 상태다.

“어젯밤에 안 들어왔던데 클럽 다녀온 거야?”

귤 바구니가 바닥을 보이자 과도를 가져다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사과를 깎던 제이가 넌지시 묻는다.

제이의 시선이 붉은색 껍질이 벗겨져 가는 사과에서 대답이 없는 라희에게로 향했다.

사과를 크게 한입 베어 물었던 라희는 제이의 물음에 사과를 오물오물 씹어서 목구멍 뒤로 꿀꺽 집어삼킨다.

“응.”

“이상한 데로 센 거 아니고?”

“넌 날 뭐로 알...”

“그럼 왜 지금 들어와?”

클럽을 내 집처럼 드나든다고 해도 라희는 새벽 3시 이전에는 집으로 돌아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 동안 3시를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 라희가 집에 돌아온 시간은 오전 11시.

평소보다 7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다.

제이의 날카로우면서도 예리한 질문에 라희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라희의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데구루루 굴러갔다.

뭐라고 변명하지?

눈을 떴는데 낯선 천장이었다고 그냥 확 불어버려?

그랬다간 제이의 차가운 눈빛을 받게 될 게 뻔했다.

제이에겐 미안하지만 나중에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클럽을 자주 못 가니깐.. 아쉬워서 계속 노느라..”

“하긴. 이제 출근하니깐.”

허술해 보이지만 어귀가 딱 들어맞는 변명에 제이가 수긍한다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회사에 다니게 되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클럽에 못 가는 게 당연했다.

클럽을 얼마나 좋아했던 라희인가?

제이는 과도로 사과를 콕 집어서 한입을 먹었다.

입안에서 사과의 새콤달콤한 과즙이 톡 퍼졌다.

“언제부터 출근해? 다음 주부터였나?”

“아니, 다다 음주부터.”

라희가 기대에 한껏 부푼 목소리로 말했다.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이었던 라희는 패션 종사자들에게는 꿈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ALLUAR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에서 당당히 대상을 차지하고 특전인 인턴 입사까지 하게 되었다.

라희가 얼마나 ALLUAR에 입사하고 싶어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제이는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사과 한 조각을 내밀었다.

“근데 ALLUAR에 들어간다고 에더. J를 만날 수 있을까?”

“ALLUAR를 다니면 한 번쯤은 보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다는 제이의 대답에 라희가 꼭 봤으면 좋겠다며 작게 중얼거렸다.

“수석 디자이너 되면 독대할 수 있다며? 혹시 알아, 네가 수석 디자이너가 될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곳이 어떤 곳인데.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곳이라고.. 거기서 괴물이 되기 전에 살아남을 수가 있을지 문제다.”

“충분히 살아남아. 내가 장담한다.”

확신이 가득 찬 말에 라희의 눈동자가 제이에게로 고정되었다.

제이는 씩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네가 디자인한 속옷들이 하나같이 야릇한 게 하나씩 소장하고 싶을 정도니깐.”

“야!!”

라희가 꽥 소리쳤다.

제이가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깔깔깔 웃음을 터트렸다.

라희는 속옷 이야기에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어쩌지..'

아까 호텔 문밖에서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나?

괜히 미련이 남았다.

…

클럽 Y.W.

오픈 시간까지 1시간을 앞둔 지금, 클럽 정문에는 입장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랜 기다림이 지치지도 않는지 짜증 하나 없이 곧 펼쳐질 꿈같은 행복함을 떠올리는 얼굴이다.

그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한 듯 차가운 외모와 대치가 안 될 정도로 능글맞은 미소를 그려올린 채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을 지나쳤다.

“새치기하는 거야?”

남자는 열정에 불타오르던 사람들을 앞질러 대기 줄 앞으로 향했다.

누군가 새치기를 하느냐고 짜증만 묻어 나오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들어오십시오.”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클럽 관계자는 급히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오랜 시간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은 입장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안으로 입장하는 남자를 보며 허무함을 느꼈다.

“백여우!”

남자가 영업준비로 한창인 클럽에 들어가 누군가를 크게 불렀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넓은 클럽을 가득 채웠다.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남자에게로 머물렀다.

“백여우 어디에 있는지 알아?”

남자가 자신이 찾는 사람이 안 보이자 예쁘장하게 생긴 직원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사.. 사장님이시라면 바에..”

“고마워요.”

남자가 고맙다며 눈을 찡긋인다.

여직원의 얼굴에 분홍빛이 맴돌았다.

남자는 당연한 반응이라며 놀라워하지 않으며 바로 향했다.

“백여우!”

“그렇게 부르지 말랬다, 임수현.”

연우가 틱틱대며 대꾸했다.

“너 또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왔다며. 내가 뒷문으로 들어오라고 했던 말 벌써 잊은 거야? 아니면 일부로 안 듣는 거야..”

“정문으로 들어와야 사람들한테 허무함을 안겨줄 수 있잖아.”

남들이 패배감을 느낄 때가 인생에서 제일 짜릿하다며 변태 같은 미소를 머금었다.

“미친놈.”

“그치? 사람들이 나만 보면 미치겠다더라. 내가 너무 매력적인가 봐.”

연우가 수현의 얼굴에 마른행주로 닦고 있었던 27년산 양주를 던질뻔했다.

속으로 '침착하자, 미친놈은 무시하는 게 답이야.'라고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지만 별 소용은 없는 것 같다.

“여긴 웬일이야."

"웬일이긴, 네 출근 날짜를 알려주려고 친히 왔지.”

“출근 날짜?”

연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눈가를 찌푸렸다.

“뭐야, 메일 확인 안 했어? 너 한국지사 본부장으로 부임했잖아.”

“메일?”

연우가 눈을 끔벅였다.

그러고 보니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클럽 Y.W에 와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짜 확인 안 했어?”

수현이 못 믿겠다며 되물었다.

수현이 보기에 일 중독에 가까운 연우는 매일 밤 메일을 확인하곤 한다.

"어젯밤에 에더가 메일 보냈대.”

“아.. 그러고 보니 확인을 안 했었네.”

그런 연우가 메일을 확인을 안 했다는 건 외박을 했다는 거나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거다.

연우의 얼굴색을 보니 그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

꼭 '연애'하는 사람처럼.

'연애하는 사람처럼?'

수현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지기 시작했다.

“백여우, 그러고 보니 어제랑 옷이 똑같잖아.”

수현이 긴 손가락으로 연우가 입고 있는 새하얀 와이셔츠와 새카만 앞치마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보냐? 바텐더 유니폼이잖아.”

뭐 이런 황당한 놈이 다 있냐며 연우의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서 속으로 안도한다.

'바텐더 유니폼이라서 망정이지.'

바텐더 유니폼을 입지 않았으면 당했을 시달림이 눈 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질색하는 것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어라? 그러게.”

수현이 김빠진다며 시선을 돌렸다.

연우가 센스 있게 수현에게 알록달록한 맥주병 하나를 건넸고, 수현이 병따개로 능숙하게 맥주 뚜껑을 땄다.

수현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근데 왜 바텐더 유니폼을 입고 있냐.”

“이게 편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고.”

“이거 입고 있으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

예를 들어 갑질을 당하는 거라든지..

사장인 자신과 바텐더인 자신에게 나타내는 사람들의 반응 차이점을 찾는 거라든지.

그중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일이 있다면 바로 어제가 아닐까 싶었다.

연우는 생각만 해도 라희와의 대화가 즐거웠는지 은은함이 묻어 나오는 미소를 그려올렸다.

“뭔 소리인지 도통 못 알아먹겠네.”

“못 알아먹으라고 한 소리니깐 당연한 거 아니냐.”

연우가 선반 제일 아래에 있는 양주를 집어 들어서 닦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어제 라희가 시키려고 했던 도수가 쎈 양주였다.

'원라희.'

자기랑 원나잇 하자고 도발해놓고서 씻고 나오니깐 이미 잠에 들어버린 재미있는 여자.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갔다.

연우는 자신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는 수현을 보며 애써 얼굴 근육을 움직여 광대를 내린 뒤에 딱딱하게 물었다.

“내 첫 출근이 언제라고?”

“다음 주 월요일.”

수현이 씩 웃으며 말했다.

…

1달 후.

“이런 곳에 입사했다니..”

패션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니고 싶은 회사로 손꼽히는 ALLUAR 한국 본사와 사원증을 힐끗 보면서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어벙한 표정을 지었다.

ALLUAR 사원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이 나는데 사원증에 떡하니 적혀있는 부서명은 구름 길을 연출시켜주었다.

선배인 지애가 살짝 전해준 말에 의하면 ALLUAR 디자인 부는 에더. J가 포트폴리오를 검토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부서란다.

남들은 사원증을 보며 언제 때려치울까 고민부터 한다던데 사원증을 받은 지 이 주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까지 사원증을 보며 설레고 있었다.

ALLUAR로 출근한지 2주가 되어갔음에도 아직도 꿈만 같은지 라희가 찹쌀떡 같은 볼을 슬쩍 잡아당겨 봤다. 찹쌀떡이 늘어나듯 쫀쫀하게 퍼졌다.

“아야.. 아프다. 꿈은 아니네.”

볼이 따끔하면서 찌릿거리자 라희가 안심했다.

라희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보며 복장을 확인했다.

머리카락을 묶어서 올린 올림머리는 단정해 보였고,

새하얀 시폰 블라우스에 항아리치마는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물씬 흘렸다.

라희 특유의 분위기로 하여금 그녀의 오피스룩은 완벽해졌다.

라희가 2%가 부족한 오피스룩에 너무 진하지도 그렇다고 연하지도 않게 입술에 틴트를 발라줘 생기를 더해줬다.

만족스럽다.

라희가 입꼬리를 예쁘게 말아올렸다.

그녀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로비를 유유히 지나서 엘리베이터 올라탔다.

출근 시간까지 5분 남짓 남지 않아서 엘리베이터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었다.

“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데 라희의 눈동자에 어떤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라희의 뇌리에 낯설지만 익숙한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필름이 끊기기 전에 자신을 보며 생긋 웃어주던 여우 같던 남자.

자신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이던 남자.

'그 남자야.'

라희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커졌다.

라희가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닫히던 엘리베이터 문을 막았다.

입을 닫던 엘리베이터가 라희의 손에 걸려 다시 입을 열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늦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ALLUAR 본사 건물은 50층까지 있었다.

층마다 사람이 내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만 5분 10분 있어야 하는 직원들도 수두룩했다.

라희가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우자 사람들이 짜증이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그중에서 라희에게 한마디를 한 남자는 아까 46층 버튼을 누른 사람이었다.

그는 쌍꺼풀이 없는 다이아몬드형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이 자신을 심하게 쨰려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라희가 미안함을 담아 살짝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힘겹게 엘리베이터에서 비집고 나왔지만 방금 보았던 남자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았다.

급하게 닫히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닫히려던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다.

"타실 거예요 안 타실 거예요?"

“타.. 타요.”

따가운 눈초리만 보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원망의 말을 툭툭 던졌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라희가 고개를 푹 숙였다.

엘리베이터가 어서 빨리 23층에 도착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잘못 본 게 틀림없겠다.

아니, 잘못 본 게 확실해야만 했다.

4화.

“라희 씨, 오늘 좀 늦었네?”

“아.. 엘리베이터에서 해프닝이 생겨서.”

정확히는 해프닝을 만들었지만..

착한 선배라도 상사는 상사.

라희는 절대 상사에게 말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모르쇠 입을 다물었다.

말끝을 살짝 흐린 라희의 말을 잘못 이해한 모양인지 김지애 대리는 손뼉을 치며 아는 척을 했다

"엘리베이터? 아, 나도 그 얘기 들었다.”

“무슨 얘기요?”

“어떤 무개념한 직원이 엘리베이터 닫히는데 내렸다가 다시 타서 5분이나 늦게 출발했다는 거야.

“그런데요...?”

“46층에 잘 생긴 실장님 한 분 계시거든, 본부장님이 9시까지 서류 제출하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때문에 5분이나 늦으셨다는 거야. 웬만큼 짜증도 안 내시는 분인데 엘리베이터에서 화나셨는지 한숨도 푹푹 쉬셨다더라고.”

“실.. 실장님이요? 임원 엘리베이터는 안 타고 왜 일반 사원용에..”

원망 섞인 라희의 말에 지애가 '아무것도 몰랐어?'라고 묻는다.

“우리 회사에 임원 엘리베이터 없잖아.”

다 좋은 ALLUAR의 안 좋은 점이 이것이었나.

라희가 입술을 잘근 씹어댔다.

“라희 씨는 ALLUAR 입사가 꿈이었다며? 어떻게 아무것도 몰라.”

“디자인 부서만 바라봐서.. 그리고 에더. J를 동경해서 온거라 회사에 대해 잘 몰라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지애가 납득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선배님.. 근데 실장님 말이에요.. 화 많이 나셨겠죠?”

“당연한 소릴. 본부장님한테 엄청 깨졌을걸.”

“5분 늦었다고 그렇게까지 할까요?”

“본부장님이라면 그러시고도 남지.”

지애가 본부장님에 관해 묻는 라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보통은 신입사원들에게 텃세를 부리는데 다행히도 지애는 텃세 따윈 개나 줘버리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지애는 직속 후배인 라희에게 강자의 서식지인 ALLUAR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낱낱이 알려주고자 했다.

한 달 전에 새로 부임해온 본부장님은 배우 뺨치는 얼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차 없는 매정한 성격 덕분에 안티가 제일 많은 남자직원이라고 한다.

공과 사가 철저해서 이것만 확실하게 지키고 시간만 잘 지키면 트러블 없이 잘 넘어간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임 실장님은 물론 본부장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거야.”

지애가 충고를 덧붙였다.

“라희씨. 오늘 3시에 아이디어 회의 정리한 거 인쇄 해야 하는데 복사실에 가서 프린트 좀 해줄 수 있어요?”

일반 사원도 이렇게 몸을 사려야 하는데 실장님에게 단단히 찍힌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라희가 마음 좀 가라앉히기 위해 혼자 있을 만한 곳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지애가 심부름을 부탁했다.

“네. 빨리 다녀올게요.”

“급한 건 아니니깐 서두를 필요 없어. 점심 먹기 전까지만 가져오면 되는 거니깐.”

“그냥 지금 가져올게요.”

“그래도 괜찮아?”

“그럼요.”

라희가 싱긋 웃어 보이며 복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

라희가 지애에게 임 실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시각.

“임수현, 도대체 뭔 소리를 했길래 이런 소문이 나?”

연우가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다며 헛웃음을 터트리며 묻는다.

“소문이라니?”

“한 비서 말론 회사에 내 평판이 바닥이더라. 공과 사도 철저하고 시간 개념도 철저해서 늦으면 얄짤이 없다네. 게다가 성격이 거지 같대, 거지.”

“한 비서가? 크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참 바르다. 그치?”

연우가 생긋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그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의 미소에 녹아들겠지만, 연우랑 지낸 지 20년도 넘은 수현이었다.

게다가 그 헛소문을 퍼트린 장본인이 자신이었기에 굉장히 찔리는 부분도 있었다.

수현은 연우의 손에 잡힌 꽉 휴지를 보더니 움찔한다.

20년 지기 친구로 말하자면 연우는 저 휴지를 던질 생각이다.

방패로 삼을 만한 물건이 어디 있을까 곁눈질로 방안을 힐끔힐끔 수색했다.

탁자 위에는 쇼핑백이 올려져 있었다.

'저건 너무 약해.'

연우가 던질 휴지에 맞으면 구겨질 게 분명했다.

수현이 고개를 절로 흔들며 소파 위를 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소파 위에 놓여있는 대형 쿠션이 들어왔다.

'저거라면.. 내 몸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수현이 뒷걸음을 치듯 소파 쪽으로 몸을 옮겼다.

수현만 연우를 20년 봐온 게 아니었다.

수현이 스토커를 한 게 아니라면 말이다.

연우 또한 수현은 20년 봐왔고 스스로보다 수현에 대해 더 잘 알았다.

연우는 눈을 희번덕이더니 꽉 휴지 말고 던질 만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날카롭지 않은 물건은 꽉 휴지 말고는 없었다.

'한 방을 노려야겠어.'

연우가 수현이 소파로 슬금슬금 다가가는 걸 보자마자 꽉 휴지를 던졌다.

'이런, 늦었어.'

꽉 휴지가 자신의 얼굴을 향해 날라오자 수현이 머리로 거리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휴지에 맞기까지 5초. 쿠션 잡기까지 4초. 하지만... 쇼핑백을 잡기 까진 2초.'

그래.

쇼핑백, 네가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너로 정하겠다.

수현이 손을 재빨리 뻗어서 쇼핑백을 잡았다.

너무 급하게 잡아서 힘 조절에 실패한 모양인지 들어 올린 쇼핑백은 공중을 향해 날아갔다.

“이런! 안돼!”

누가 먼저라고 할것도 없이 두 남자가 동시에 외쳤다.

수현은 꽉 휴지와 공중으로 날아간 쇼핑백에 막지 않기 위해서 두 손으로 잘생긴 얼굴을 가렸다.

연우는 급한 대로 쇼핑백에 담아놓은 무언가가 자태를 뽐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급하게 손을 뻗었다.

절대로 저놈한테 들켜선 안 된다.

저놈한테 안에 넣어놓았던 물건을 들키기라도 하면 평생 놀림에 시달릴 게 분명했다.

퍽!

투옥.

“... 어라?”

“... 망했다.”

연우가 급하게 뻗은 손은 수현이 맞을 거라고 확신했던 휴지를 막아주었다.

수현은 질끈 감았던 눈을 슬그머니 떴다가 자신의 손에 걸린 붉은색의 물체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던져버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악마보다 훨씬 사악한 미소를 지은 수현은 바닥에 널브러진 붉은색의 부자로 시작해서 어자로 끝나는 여자의 필수품을 집어 들었다.

각각 한 손에 후크를 끼는 부분을 잡고 늘렸다.

“백여우 씨? 이게 누구 속옷일까.”

“...”

“되게 야 하네? 디자인이 독특하기도 하고."

“느으나라(내려놔라).”

연우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말했다.

이를 본 수현의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연우의 얼굴 앞으로 가까이 가져다 댔다.

“네 취향인가 봐?”

“내놔라.”

“그렇구나. 되게 파격적이고 노골적이네. 취향이.”

“하아.”

짧지만 굉장히 무거운 한숨을 내뱉는다. 말로 해선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브래지어를 잡아당겼다.

붉은색 무언가를 쟁탈하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두 사람의 눈동자에 불꽃이 파스슥 튀겼다.

그 순간 본부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

“...”

“...”

세 사람, 연우, 수현 그리고 연우의 비서인 한지영이 그 자리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꼭 깔아놓은지 이틀 된 시멘트 바닥처럼 끈적거리지만 딱딱하게 회색빛을 내뿜으며.

정적이 흘렀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 계속 노크했는데... 답이 없으시길래...”

“....”

“괜찮.. 아니 오해예요!"

“취향 존중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왠만큼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는 한 비서, 아니 지영이 시뻘게진 얼굴로 본부장실에서 도망치듯 나갔다.

문이 쾅 닫히자 수현이 피식 웃었고, 연우는 혼을 잃은 채 본부장실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취향 존중하마.”

수현이 위로하듯 연우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그리고 바닥 차다.”

말을 마친 수현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본부장실 문을 닫고 나갔다.

수현이 나갔음에도 연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못 했다.

…

연우가 본부장실 문을 열었다.

“저기 한 비서님, 이거..”

20부만 복사해서 가져다주실래요?

라고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연우가 말을 흐렸다.

허공에 대고 말을 중얼거린 연우가 머쓱한지 뒤통수를 긁적였다.

“아무도 없네?”

“내가 복사해야겠네.”

연우가 손바닥에 놓여있는 USB를 힐끗 내려다본 후 손에 꾹 쥐었다.

연우가 문이 닫힌 자신의 사무실을 힐끗 돌아본 뒤 복사실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연우가 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무섭게 옆에 있는 또 다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지영이 서류 봉투를 가지고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섰다.

똑똑- 그녀가 본부장실 문을 노크하자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녀의 노크에 답이 없었다. 지영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시 한번 노크했다.

“어라? 안 계시나?”

지영이 실례를 무릅쓰고 본부장실 문을 열었다.

“안 계시네.”

“어디 가셨나 보네.”

텅 빈 본부장실은 본 지영이 작게 중얼거렸다.

…

ALLUAR 빌딩은 디자이너들의 왕국 아니랄까 봐 일반적인 건물과 디자인이라든지 설계가 완전히 달랐다.

약간 꼬깔콘 모양으로 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층이 작아지는 형식이었다.

본부장실이 자 연우의 사무실이 있는 49층은 그중에서 두 번째로 작았다.

덕분에 복사실은 30층에나 가야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연우는 30층을 눌렀다가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30층이나 23층이나 어차피 거기서 거기였다.

가는 김에 디자인 팀에 새로 들어온 사원 얼굴이나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우는 빨간 불이 들어오는 30층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고 23층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이 들어왔던 30층 버튼은 불빛을 잃었고 대신 23층 버튼이 레드 카펫을 걷는 듯 반짝였다.

띵- 23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디자인 부서와 복사실이 있는 23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렸다.

“오.. 엘리베이터 왔.. 헉!!! 본.. 본부장님.”

“디자인 2팀에 김지애 대리님. 맞으시죠?”

“예? 예.”

지애가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다.

그녀는 백본부장이자 연우의 소문을 익히 들은 차였다.

한 달 전에 부임해오신 베일에 감춰진 백 본부장에 대한 소문을 말이다.

지애가 배우 뺨치는 귀공자 비주얼을 물씬 풍기는 얼굴과 대비되는 거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연우를 힐끗 보았다.

생긋 웃는 얼굴만 보아선 성격이 부들부들한 두부 같은데..

'성격이 똥처럼 더럽다는데..”

똥 씹은 얼굴을 한 지애를 본 연우가 그녀의 속마음이라도 읽은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아마 이 여자도 임수현 그 자식이 낸 헛소문을 믿어버린 희생양일 게 분명했다.

연우가 열 받았지만 애써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임수현, 만나면 가만 안 둔다.

“안녕하세요?”

“.. 아네.. 여기는 무슨 일로..”

누가 잘못했나? 누군지 몰라도 엄청 잘못했나 보네.

본부장님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다니.

지애가 연우의 눈치를 힐끗힐끗 보며 말했다.

“다름이 아니라 프린트할 게 있어서요.”

“프린트요?”

“예.”

“본부장님께서요?”

“예.”

“직접요?”

“뭐.. 못할게 입나요?”

“아.. 아닙니다.”

진상 본부장이 직접 복사를 한다니?

지애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혹시 복사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그럼요. 근데 30층에도 복사실이 있는데.. 왜 하.. 필.. 아니 왜 여기까지 걸음을..”

지애가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에더, 아니 대표님 말씀이 디자인 팀에 관심이 가는 신입이 들어왔다고 해서요.”

“아.. 그랬구나. 어? 그러고 보니 라희 씨 지금 복사실에 갔는데.”

“라희 씨요?”

“네. 우리 신입이요.”

라희.

보고 싶은 이름인데.

연우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었다.

그러고 보니 한 달 전 자취를 감춘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혹시라도 클럽에 다시 올까 봐 시간이 날 때마다 들어갔지만 그녀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에요.”

“안내해줘서 고마워요. 그냥 알려주기만 해도 되는데.”

연우의 예의 바른 태도에 지애의 눈동자가 약간 커졌다.

소문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말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그거 권력 남용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보다 직급이 낫다고 해서 말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연우가 능글맞게 웃으며 복사실 문을 열다가 라희와 눈이 마주쳤다.

여우 같던 그의 눈이 약간 커지더니 이내 초승달처럼 예쁘게 휘어졌다.

“어. 어. 어?? 그쪽은..”

“... 그쪽?”

연우가 검지로 자신을 가리키는 라희의 손을 한번 그리고 당황에서 어버벅 거리는 라희의 얼굴을 한번 보았다.

저도 라희의 이름을 들었음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해 이렇게 놀랐는데, 아무런 복선조차 받지 못했던 그녀는 어땠을까?

연우는 기껏 복사한 서류들을 후드득 떨어뜨리고 자신을 삿대질하는 라희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볼에 보조개가 예쁘게 파였다.

5화.

라희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두 손으로 눈을 한번 비벼보기도 하고 눈을 세게 감았다 떴지만 여전히 눈앞에 있는 사막 여우를 닮은 남자.

한 달 전에 봤었던 은발은 온데간데없고 새카만 머리카락이 대신하고 있었다.

새카만 머리카락은 그를 더욱 오묘하게 만들어 주고 있었다.

라희가 말을 더듬었다.

“그러니깐.. 그러니깐.”

그쪽이 왜 여기 있어요?

이렇게 물으려던 라희가 옆에서 경악하면서 입 조심하라고 손짓하는 지애를 보고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니깐?”

“... 그..”

연우가 라희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 읊었다.

어디 한번 말을 해보란 소리였다.

연우에게 말을 하기 이전에 라희가 지애를 힐끗 보았다.

지애가 입 모양으로 말했다.

본부장님이라고.

지애가 주둥아리 아프게 말했던 성격이 더럽다는 본부장님이었다.

“.... 확 죽어버리고 싶다...”

라희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중얼거리려고 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녀의 속마음은 입 밖으로 소리가 되어서 나왔다.

연우의 미간이 좁혀졌고, 지애의 얼굴은 백지장보다 하얗게 질려버렸다.

“본부장님.. 라희 씨가 아무래도 다친 거 같은데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심이..”

“김지애 씨?”

“예? 예.”

“잠깐 나가주실래요?”

청천 벼락과도 같은 소리에 당황한 지애가 라희의 어깨를 잡고 억지로 연우에게 숙이게 했다.

지애의 과격하면서도 라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행동에 연우의 눈썹이 꿈틀댔다.

지애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본부장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부탁했다.

“본부장님.. 제가 라희 씨 혼낼 테니깐..”

“누가 혼낸데요?”

연우가 의아함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묻는다.

그러자 지애가 놀래며 연신 눈을 끔벅였다.

자기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많은 가정을 세웠지만 그의 반응은 지애의 예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애가 약간을 안심하며 참았던 숨을 내뱉었다.

“아니.. 혼내는 건가?”

그러기 무섭게 연우의 웃음이 약간 섞인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혼잣말하듯 들려왔다.

연우의 혼잣말을 들은 건지 아닌 건지 지애가 황당한 얼굴을 하고 서있자 연우가 싱긋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방금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죠 원라희 씨.”

연우가 라희의 말에 동의를 구하듯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라희 씨, 괜찮겠어요?”

“... 아마도요.”

라희의 대답을 들은 지애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복사실을 나가려고 발걸음을 옮겼다.

연우가 문을 살짝 열고 가는 지애를 다시 불러 세웠다.

“지애 씨?”

“네.”

“갈 때 문 닫고 나가주세요.”

“문이요?”

“네. 꽉 닫아주세요.”

지애가 머뭇거렸지만 본부장의 말을 감히 그리고 차마 거역할 수 없어 문을 꽉 닫고 나갔다.

보는 눈이 사라지자 연우가 약간은 사무적인 던 표정을 청소기 민 것처럼 깔끔하게 지워버렸다.

대신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능글맞은 미소와 예쁘게 휘어진 눈을 그려놓았다.

“잘 지냈어요?”

“...”

“난 못 지냈는데.”

“...”

대답이 없는 라희를 물끄러미 보던 연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왜냐고 안 물어봐요?”

“... 왜요.”

“누가 나 버리고 가서.”

연우가 씩 웃었다.

어디 말을 해보란 뜻이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잘 안된 라희는 믿을 수 없다며 연우에게 삿대질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백.. 백백 연우 본부장님...?”

“이제야 연우라고 불러주네요.”

“...”

“뭐, 여전히 정확하진 못하지만.”

라희가 뭔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본부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라희가 측은한 미소를 지었다.

순간 떠오르지 말았어야 할 흑 역사 같은 기억이 파라노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백연우야. 내 이름.'

'백여우?'

'여우 아니고 연우.'

'여우.'

'연우, 백연우. 따라해봐.'

'여우. 백여우. 여우야!'

지난밤 여우를 부르며 난리를 치던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연우는 연우라고 소개를 하는데 계속해서 여우라고 말하던 자신의 흉한 모습이 말이다.

자신만만한 웃음을 내보이던 라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상황은 조금 전과 정반대가 되었다.

어이없던 표정을 짓던 연우는 미소를, 자신만만한 미소를 그려올렸던 라희는 뭔 짓거리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차마 웃을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너 기억났지??”

“크흡.... 잠깐만요.”

“기억났네. 안 났을 리가 없다니깐.”

“왜 그렇게 생각해요?”

“좀 강렬했어야지. 안 그래?”

라희의 얼굴이 시뻘게졌다.

연우가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다.

“멀쩡한 연우를 여우로 만들고.”

“... 그건 미안하게 됐어요.”

“알면 됐어요.”

연우가 씩 웃었다.

“나 버리고 가서 되게 서운했었는데. 지금도 서운하고.”

“.... 버리고 간거 아닌데요.”

“그럼?”

연우가 화색 하며 물었다.

그러나 어쩌나..

라희의 입에서 나올 말을 그렇게 달콤하지 못했다.

라희는 그의 불타오른 기대감에 찬물을 부어버리듯 매정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냥 간 건데요.”

“... 왜?”

“아무 사이도 아니라서요.”

라희가 원나잇에 대해 녹색창에 친히 검색을 해보았지만 대부분 원나잇으로 끝나게는 대부분이었다.

물론 섹스 파트너로 발전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원나잇은 원나잇으로 묻어주는 게 낫다고 나와있었다.

게다가 그녀가 뭣도 모르고 올려둔 돈은 원나잇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다시는 보지 말자는 의미 같은 걸 지니고 있다고 한다.

“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네?”

“우리 사이에 하룻밤이 있었잖아.”

하룻밤은 하룻밤으로 끝내는 거 아니었어?

근데.. 잠깐.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상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왜 반말이세요?”

아까부터 존댓말에서 친근한 존댓말을 하다가 반 존댓말을 하다가 완전히 말을 놓아버린 연우 때문에 이상한 낌새조차 느끼지 못했었다.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더니.

갑자기 반말을 하니깐 그러는 게 분명했다.

“내가 상사니깐?”

연우의 대답은 기가 차고도 남았다.

“그거 권력남용이에요. 공과 사가 철저하다는 분께서 모르시는 건 아닐 테고.”

김지애 대리님에 말에 의하면 사생활도 일에 굉장히 칼 같다고 했다.

라희가 공과 사를 언급하며 날카롭게 지적하자 연우가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다.

“그거 헛소문인데?”

임수현, 그 자식이 퍼트린 헛소문이 들어온 지 2주일밖에 되지 않은 라희의 귀에도 들어갔는 건 다 심각하다는 소리다.

연우는 사무실로 돌아가면 임수현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하며 애써 살기를 지우며 웃었다.

라희는 황당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연우의 가벼운 미소 하나에 멍을 때리고 말았다.

“나는 공과 사가 철저하지 못해. 그래서 회사에서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지?”

“...”

“왜? 혹시 공과 사가 철저한 남자가 이상형이야? 그럼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데..”

연우가 자신 있다며 당당한 미소를 지었다.

연우가 무어라 말을 더 하려고 할 때 복사실 밖에서 기다리던 지애가 불안한지 복사실 문을 노크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잠시 정신줄을 놓고 있던 라희가 정신이 퍼뜩 들었는지 연우를 힐끗 보았다.

언제 미소를 지었냐는 듯 공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설마 방금 공과 사가 철저한 사람이 이상형이라니깐 이러는 거야?

라희의 얼굴에 황당한 기색이 여력 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지애가 문을 열고 문 사이로 얼굴을 빼꼼 내밀며 물었다.

연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혼내셨어요?”

지애가 용기 있게 연우에게 물었다.

“그럴 리가요.”

저렇게 예쁜데. 혼낼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연우가 애써 입 밖으로 소리가 되어 튀어나오려는 말을 꿀꺽 삼켰다.

“그쵸 원라희씨?”

지애는 못 미덥다는 듯 연우를 힐끔였고, 그에 억울해진 연우가 라희에게 대답을 요구했다.

라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애는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긴 했지만 공과 사가 확실한 본부장님께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린 상상을 말끔히 지워버렸다.

…

50층, 본부장실이 있는 곳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다.

연우는 긴 다리를 뻗으며 50층에 들어섰다.

“오셨습니까, 본부장님.”

지영이 인사를 건넸지만 연우는 듣지 못한 건지 그녀를 횅하니 지나쳐버렸다.

“무슨 일 있으셨나?”

지영이 갸웃 거리다가 본부장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았다.

쾅- 소리와 함께 본부장실 문이 닫혔다.

꼭 무슨 일이 있었던 사람 같았다.

지영이 데스크에 다시 앉기 무섭게 본부장실이 스르륵 열렸고, 얼굴이 붉어진 연우가 답답했는지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한 비서.”

“예, 본부장님.”

“혹시 청심환 있어요?”

"청심환이요? 심장의 열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쓰이고 사람들이 회사나 대학 면접, 수능과 같이 중요한 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먹는 약이라면 있습니다만.”

한 비서가 백과사전을 달달 외운 사람처럼 청심환에 대해 읊어댔다.

“다행이네요. 그것 좀 가져다주세요.”

“이외에 뭐 필요한 건 없으십니까?”

“마음 진정시킬 차 좀 가져다줘요.”

“청심환과 린덴 허브티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백연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본부장 실로 쑥 들어갔다.

지영은 평소에도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심각할 정도로 정상적이지 못한 연우를 보며 청심환과 허브티를 꺼냈다.

한편, 본부장실에 들어간 연우는 소파에 미끄러져 쓰려져 누워있듯 앉아있었다.

소파 위에는 거칠게 풀어헤친 넥타이가 올려져 있었다.

“심장에 너무 안 좋아. 심장에..”

라희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댔다.

연우는 이러면 안 된다며 심호흡을 했지만 놀래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라희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 진정이 되지 않았다.

연우가 지영이 가져다 놓은 허브티를 한 모금 들이켜고 청심환을 까서 꼭꼭 씹어 먹었다.

꿀꺽- 청심환을 집어삼키자 어느 정도 심신의 안정을 가져왔다.

“휴.. 심장 터져 죽는 줄 알았네.”

연우가 풀어헤쳤던 넥타이를 다시 매고 우아하게 앉아서 허브티를 마셨다.

…

“라희 씨, 아까 본부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

“음.. 특별한 건 없으셨어요.”

“별말씀 안 하셨어? 그런 거 치곤 본부장님 표정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이던데.”

“컥컥.”

라희가 커피를 마시려다가 사레에 걸렸는지 기침을 헀다.

터질 것 같은 표정이라니..

뭔가 어감이 되게 이상했다.

라희가 주먹으로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쳤다.

사레들린 기침이 계속해서 나왔다.

“본부장님 무서워? 실제로 보니깐 포스가 장난 없더라.”

“크흠.. 본부장님의 포스요..?”

라희가 방금 전 보았던 연우를 머릿속에 떠올려보았다.

여전히 능글맞고 장난스럽기만 했다.

근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은발이었던 머리가 흑발로 변하니깐 묘했다.

꼭 처음 본 사람인 거 같기도 하고..

흑발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면 은발은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했다.

바텐더 비슷한 거라더니, ALLUAR의 본부장이 뭐가 비슷한 거지?

정말 반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날 속인 거야?

“근데 정말 잘생기셨더라."

라희가 짜증 나서 커피를 다 마셔서 빈 종이컵을 꾸깃 구겼다.

언제나 봐도 잘생겼다며 지애는 분홍빛이 맴도는 볼을 감싸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라희가 손에 쥐어진 구겨진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넣은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다.

라희가 어디서 연락이 온 곳이 없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창을 열고 메일을 열었다.

“응? 메일 하나가 왔네.”

처음 보는 메일 주소로 메일이 오자 라희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마우스를 두 번 클릭했다.

메일을 읽던 라희가 눈을 의심했다.

“이거 진짜야? 꿈인가..”

에더. J에게 메일이 와 있었다.

“라희 씨? 뭔데 그래.”

“그... 에더. J한테 메일이 왔... 어요.”

“정말?”

지애가 라희의 뒤로 나타나 메일을 읽어보았다.

라희가 디자인했던 속옷의 디자인을 보고 감탄했다는 메일이었다.

다음 달 정도에 한국에 가는데 직접 바느질로 수놓고 만들었다는 속옷을 볼 수 있겠냐는 메일이었다.

“어머, 라희 씨 축하해.”

“감사합니다.”

“속옷 디자인했었나 봐. 나도 보고 싶네.”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속옷이.

잊고 있었는데 한 달 전, 연우와 함께 밤을 보냈다고 추정되는 그날, 에더. J에게 보냈던 속옷을 호텔에 두고 나왔다.

라희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려는데..

“잠깐..”

방금 그 호텔에서 마지막에 나오신 분을 만나지 않았는가?

불행 중 다행이었다.